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탈출기 16:2-4, 12-15	제2독서	에페소서 4:17, 20-24	복음	요한 6:24-35
--------	------	----------------------	------	---------------------	----	---------------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으라” (에페 4,22-24)

긴 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녹녹한 습기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폭염을 피해 시원한 쇼핑몰이나 카페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먹사니즘’ 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듯 먹고 즐기는 일에 진심인 듯하다. 페이스북 담벼락에는 맛있게 먹은 음식을 서로 자랑하는 듯 소개하는 이야기가 많다. 삶의 양식이, 우선순위가 많이 변했다. 맛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먹고 배가 부르냐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세계는 배부르면 그만인 동물들에게서나 어울리는 세계다. 광야 생활에 지쳐 투덜거리던 히브리 사람들은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행복해서 배가 부른 나라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 행복한 세상’ 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여겼다. 욕심을 날마다 비우고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덜어진 만큼 빈자리에 행복이 가득해진다. 조금씩 조금씩 욕심을 비우다 보면 오히려 튼실해지고 행복해지는 나라가 약속의 땅 하느님 나라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 모세와 아론에게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왜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며 불평했다(제1독서 탈출16,2-4, 12-15). 히브리 족, 하삐루(용병, 노예, 떠돌이 등 하층민을 총칭하는 말)들은 약속의 땅을 찾던 광야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판에 새겨 서원(誓願)했던 첫 마음은 뒷전이고, 노예살이 때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아우성을 쳤다. 오죽하면 노예의 궁색한 처지를 행복하다고 여겼을까? 참 딱하고 고약한 일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행복한 나라, 인권이나 평등 따위의 근사하고 거룩한 말은 개에게나 주고 당장 배불리 먹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주일 값없이 실컷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이 오늘 복음(요한6,24-35)에서는 예수께 따지듯이 묻고 있다.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아예 대놓고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며 졸라 댈다. 시도 때도 없이 늘 배부른 인생을 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옛 인간을 벗고 새 인간을 입게 해달라는 청탁을 듣고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따끔하게 타이른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으려면 울바로 들고 먹어서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라.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으라” (제2독서 에페4, 17.20-24).

사람이 산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밥’ 을 구하는 일이다. 이웃 종교인 불교에서는 밥을 짓고 나누어 먹는 일, ‘공양’ 을 중요한 수행으로 여긴다. 그래서 “밥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중노릇 한다”, “한 철 공양 주만 잘해도 평생 먹을 복이 생긴다” 는 말을 자주 한다.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사실, 밥을 짓는 일은 생명의 집을 지어 바치는 것이요 먹는 일은 생명을 가꾸고 키우는 일이다.

우리 가톨릭교회도 들고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니, 들고 먹는 일은 우리 신앙의 처음이요 마침이다. 말씀(성경)을 들어서 믿음을 복돋우고 거룩한 몸(성체)을 받아먹는 사람은 무력무력 자라서 하느님의 사람, 새사람이 된다. 울바로 들고 먹어야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내 남 없이 신앙인 노릇 제대로 하는 새사람이 되려면 울바로 들고 먹어야 한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나주)	
8월6일(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교 무 금	\$ 1,244.00 \$ 3,490.00
8월7일(수)	연중 제18주간 수요일	오전 8시	성 물 방 자 선 비	\$ 20.00 \$ 263.00
8월8일(목)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오후 7시30분	성소후원	\$ 183.00
8월9일(금)	연중 제18주간 금요일	오전 10시		
8월10일(토)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5,200.00
8월11일(주일)	연중 제19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11명 성인: 170명
교무금 봉헌자	고원석(7-9)김혜주(5-9)김응환.이상인.김팔봉.지영욱(7-8)김용문(1-8)지종원(6-7)박재례(1-7)이혜옥(6)윤영자.박지은.김정홍.김진태(7)윤재경.성영진(8)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랑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마태 17,1-9)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것을 기리는 축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14일) 40일 전에 지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40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전례력에 이 축일이 도입된 것은 1457년 갈리스토 3세 교황에 의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활의 정점인 거룩한 변모는 십자가 수난과 죽음의 결과인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 주는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할 수난과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게 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타보르산에서 예수의 거룩한 변모를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의 이기적 욕심과 편안함을 위해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훌륭히 사라지면서 스승과 함께 다시 내려와야 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인류구원을 위해 수난과 십자가를 향해 다시금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른한 여름이야말로 주님께 기도하기 좋은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계선 2017년 8월 6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삼종기도를 주례하며, “사람들 대부분이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8월의 여름은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여름은 주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상기할 수 있는 시기이죠.” 또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전망을 드러내 줍니다. 그 고통은 사디즘이나 마조히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겪는 십자가, 시련, 어려움들이 부활안에서 극복되고 그 해결책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이며(루카 9, 29) 변모했습니다. 교황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묵상 중에 잠시 내적 시선을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내어 맡기자”며 “기도는 성령의 광채로 우리를 빛나게 해준다”고 호소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고 다른 이들과 주변 세계를 비추게 해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빛을 밝히는 이들을, 빛나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는지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정의 끝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 때 지금 겪는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승점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준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남정률 기자와 평화신문의 성슬기 기자의 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생일) 산하비 영육건강	김평옥 모니카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최세실리아 영육건강	권안젤라
연	원건호 스테파노 영혼	원미카엘, 기보엘, 다카족	생	한아름 아네스, 이서향 미카엘라 이선희 크리스티나 영육건강	아빌라데레사회
연	고용자 데레사 영혼	정영규 안토니오 가족			
연	이영순 소피아 영혼	표정호 다니엘 가족	생	(생일) 임그라시아 영육건강	이영숙 데레사
연	차마리아 영혼	이발렌티노 가족	생	(축일) 장호길 요한비안네 영육건강	이영숙 데레사
연	윤계화 데레사 영혼	권안젤라	생	조영숙 도미니카 영육건강	성모회
연	박수경 루시아, 영규홍 안드레아 영혼	진엘리사			
연	박수경 루시아 영혼	김규철 레오 가정			
연	박수경 루시아 영혼	곽유경 데레사	연	원건호 스테파노 영혼	피효진 아그리피나
연	박수경 루시아 영혼	이나숙 데레사			
연	고용자 데레사 영혼	10구역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노공소) 미사
일시: 4일(주일) 성당에서 오후1시 출발
참여단체: 구역부
리노공소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본당 구역장 회의
일시: 4일(주일) 교중미사 후 엘리사벳방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8월 구역미사 (5구역)
일시: 9일(금) 오후7시
장소: 최범진 아브라함. 박명혜 엘리사벳(자택)
구역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구역미사 및 단체 활동
1-1구역: 16일(금) 오후 7시, 김수용 스테파노/아녜스(택)
2구역: 18일(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6구역: 18일(주일) 교중미사후, 데레사방
8구역: 18일(주일) 교중미사후, 요한방
9구역: 18일(주일) 교중미사후, 루카방

사회복지부: 4일(주일) 오전8시 홈리스 음식봉사
연령회: 4일(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5. 제28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10일(토) 오전8:30~오후6:00
최종 리허설: 9일(금) 오후3시~
(각 단체에서는 모임활동에 참고 바랍니다.)
참가신청마감: 8/4일(주일) 까지
강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장
신청/문의: 김은영 폴리나 (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본당에서 개최되는 북가주성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우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일시: 15일(목) 오후7시30분. 성당
주일과 같은 의무대축일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축일 미사중에 성인 세례식이 있습니다.
7. 2024 Missionary Cooperative Appeal 안내
일시: 17일(토)~18일(일) 모든 미사
(교구 2차헌금 있습니다)
목적: 해외선교후원 (필리핀 외방선교회)
안내자: Glenn Jaron 신부님
8. 본당 꾸리아
일시: 18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뽀레시디움 4간부는 모두 참석 바랍니다.
9. 사랑의 급식 (2구역)
일시: 18일(주일) 모든 미사후 친교실
메뉴: 비빔밥 가격: \$5/1인
도네이션 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10.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선종하신 엄규홍 안드레아, 이영순 소피아
박수경 루시아, 고용자 데레사 연령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 감사합니다(도네이션)
본당 신부님: \$1,480 (미사예물)
박종윤 요셉, 박성진 율리아: \$200 (장례미사)

<< 주일학교 >>

주일학교 가을학기 개강 미사

일시: 18일(주일) 오전9시

주일학교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에도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여 바랍니다.

화답송	<p style="text-align: center;">주 님 은 하 늘 의 양 식 을 주 셧 네</p>
-----	--

전례봉사	연중 제18주일 (8/4)	연중 제19주일 (8/11)	연중 제20주일 (8/18)	연중 제21주일 (8/25)
미사해설	박문교 / 정미정	김선식 / 이해련	오민정 / 김선영	김아영 / 조용주
복 사	허준희 / 지마리 송돈희 / 윤지현	황건영 / 임가빈 김규철 / 박지은	지마리 / 박예진 최준우 / 김영준	박예린 / 박예진 권오승 / 장현철
헌금위원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뽕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2110 Broadway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HANDMADE SOAP & CANDLES
쉐 줄리아 공방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